

새만금 서해시티 연내 착공 청신호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기술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원안대로 통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의 입찰방식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서해시티) 조성사업의 연내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의 심의 결과, 공사가 제출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턴키 입찰방식과 달리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를 검토해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사기간 단축 △공사관리 방안 등을 시공자가 제안하고, 이를 심사한 후 입찰가격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의 설계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고, 신속한 사업추진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사업은 2022년 12월 매립공사 완료, 2024년 12월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4월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함께 수행할 실시설계적격자를 9월에 선정해 11월말 착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 예정이며,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입찰방식이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설계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시장친화적인 수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올해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공모 실시

전기안전공사, 내달 20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오는 4월 20일까지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공모'를 실시한다.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공모는 국민의 전기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전기재해 예방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도 23회째를 맞는다.

포상 대상은 민간과 공공 전 부문을 아우르며, 전기안전관리 및 제도 정착에 이바지하고,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는 물론 안전기술이나 우수제품 개발 보급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들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기술향상과 보급 활성화, 전기안전 홍보 및 교육, 캠페인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도 추천대상이다.

추천자 공적평가는 최근 5년간 공적을 우선 적용하며, 훈·포장의 경우 10~1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 표창은 3년 이상의 공적을 요한다. 본인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추천된 유공 후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국무총리 이상 정부 포상의 경우는 후보자 공적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사실관계와 적격 여부를 확인 후 포상이 결정된다.

유공자 추천서는 공사 본사 및 전국 사업소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마감 시한은 4월 20일까지며 유공자 시상식은 오는 9월 열리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무대 위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본사와 가까운 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지난 13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과 장기요 농협영업본부장, 서영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NH농협은행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식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함께 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도에 성금 10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가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와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도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장기요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상우 농협은행 전북도청장출장소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된 이번 성금은 감염증 확산방지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 세대 및 사회복지 시설 구호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현장에서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며 "다시금 활기찬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코로나19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 영업점 방역 점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구비' 등의 감염 예방 활동과 함께 '코로나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금융 지원에도 앞장서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문 대통령, 흥남기 부총리에

"계속 잘해 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를 놓고 당과 이견을 보여 거취 논란이 불거진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함없는 신임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흥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흥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로도 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뉴시스

'올해 배·복숭아꽃, 평년보다 최대 9일 빨리 필 듯'

농진청 "이상저온 대비 인공수분 준비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배와 복숭아 꽃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9일, 지난해보다 최대 5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인공수분 등 꽃가루 준비와 저온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지난 13일 당부했다.

꽃 피는 시기 분석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복숭아 '유명'과 배 '신고' 품종의 만개기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했다. 복숭아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남부지방인 전주시가 4월 8~11일로 평년보다 4~8일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중부지방인 경기도 이천시는 4월 17~21일로, 평년보다 3~7일 이를

전망이다. 배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광주광역시시는 4월 8~10일로 평년보다 1~6일가량 빠를 전망이다.

한편, 복숭아·배꽃 피는 시기는 3월 이후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예기치 못한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이 발생하면 예측치와 실제 개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꽃의 만개기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공수분은 이슬이 갠 뒤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 하루 2~3회 정도 하는 것이 알맞다. 다음 날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늦은 오후까지 작업

을 진행한다. 꽃 필 무렵 날씨가 건조하면 암술 수명이 짧아지므로 인공수분 시기는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른 개화에 늦서리 피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과수원 방상팬 등을 점검해 저온에 대비한다.

김영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장은 "예상 개화 시기가 빨라진 것은 겨우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3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라며,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에 농가에서는 개화기 날씨를 잘 살펴 저온과 강우,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금융위 "16일부터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공포로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데믹 선언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날 코스피도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700선을 내주는 등 폭락을 면치 못했다. 이에 우리나라 증시 개장 이래 처

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가격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동시에 발동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증 체크카드 누적 10만원

이용시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제공

전은, 새학기 'Welcome To U Check Check 이벤트' 시행

체크카드 상위 이용학생

대상 에어팟프로 등 증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새학기를 맞아 도내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고객을 대상으로 '2020년 JB카드 Welcome To U Check Check 이벤트'를 시행한다.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총 36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입생과 재학생이 대상으로 응모 후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스타벅스 체크카드인 1st 트리플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웨이버베어스, 맥방이 캐릭터 디자인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체크카드도 응모후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증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한 상위 이용고객 20명

에게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 1등 1명에게는 에어팟 프로, 2등 3명에게는 프라다 카드홀더, 3등 16명에게는 편의점 1만원 모바일쿠폰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SNS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도 진행된다. 본인 인스타그램에 전북은행 또는 JB카드와 연관된 인증샷과 #JB카드새학기 라는 해시태그를 달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전북은행 카드사업무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학식이 취소되고 개강이 미뤄지는 등 새학기에 맞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위축된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로 대학생들의 활기차고 희망찬 대학생활이 되길 응원한다"라며 금번 이벤트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벤트 응모 및 상세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콜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 뉴스마트 뱅킹 어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피해 긴급 금융지원

전북농협, 소상공·중기 대상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전북농협 관내 농·축협에서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이나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관련 업종 등 피해를 우려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에게 상호금융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 이용 고객의 경우 △최고 1%(조합원 영농자금의 경우 2%p 이상) 대출금리 우대 혜택과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 고객 피해자의 경우에도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 연장 또는 재대출 시 우대금리와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주고, 대출금 연체 시 연체이자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다.

박성일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중소기업체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상반기 시금형제작지원 참여 업체 모집

전북도-경진원, 31일까지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예비창업자와 제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돌봄기업을 넘어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0년 시금형제작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본 사업은 도내 예비창업자와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 전 단계인 시금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9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했고, 선정업체 중 일부는 시금형제작 이후 양산 과정에 돌입했다. 특히 '주캘리스랩'은 본 사업을 통해 특허획득 이후 온라인 판매로 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쿠엘' 또한 기술특허와 상표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금형제작지원에 참여할 10업체를 모집한다. 현재 희망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북경제가 어렵지만, 제조업의 기술역량 강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금형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시제품제작 이후 양산단계까지 원스톱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완

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ta.kr) 또는 전화 문의(자금기술팀 ☎063-711-2052)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수련실태 전국 6위 차지

예수병원 재활의학과가 2019년 수련 실태 조사에서 전국 78개 수련병원 중 6위를 차지했다.

예수병원은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대한재활의학회 2019년 재활의학과 전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수련실태조사 점수 96.34점(100점 만점)을 획득해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 중 6위를 차지, 상위 7%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98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재활병동을 설립해 재활의학을 선도하고 2014년에 전국 최고 수준의 재활센터를 설립한 예수병원은 이번 수련실태조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김윤상 기자